

안톤 솔츠·정유진씨 부부, 23일 '인도 시바카시 어린이들' 자선행사



오는 23일 오후 콘스트 라운지에서 시바카시 아이들을 위한 자선 행사를 여는 핫무트 솔츠(사진 맨 오른쪽)씨가 인도 시바카시 쉼터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에게 쉼터를”

‘폭죽도시’ 고아들 위해 콘스트 라운지서 모금파티

어머니 핫무트 솔츠씨 10년째 후원... “정성 모아달라”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제2의 도시 마두라이에서 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시바카시(Sivakasi)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폭죽 80%가 만들어지는 도시다.

불꽃놀이의 화려함 이면에는 그들의 처참한 삶이 숨겨져 있다.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그들은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폭죽 공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한다. 해마다 폭발 사고로 부모를 잃는 아이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려운 생계 때문에 다시 폭죽 공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거리로 내몰리는 시바카시 아이들을 위한 자선 행사가 광주에서 열린다. 오는 23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콘스트 라운지(KUNST LOUNGE)에서 열리는 ‘인도 시바카시로부터의 초대’.

특이한 점은 콘스트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는 안톤 솔츠(41)·정유진(여·40)씨 부부가 어머니 핫무트 솔츠(여·70)씨의 철수를 맞아 이번 자선 행사를 기획했다는 것이다.

핫무트 솔츠씨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장학사로 은퇴한 뒤 10여 년 전부터 한 NGO 단체를 도와 세계 각국의 독자들을 위한 자선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쉼터(이하 쉼터)를 후원했다.

하지만 4년전 NGO 단체가 시바카시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 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핫무트 솔츠씨가 직접 운영비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 운영을 시작했다. 그는 매년 50여 일 가량을 시바카시에 머물며 아이들을 돌보기도 했다.

같은 곳에서 20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낮에는 책을 읽고, 밤에는 단잠에 빠져들었다. 확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일종의 보호소 역할도 했다.

알마 전 쉼터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아이들이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핫무트 솔츠씨는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아이들을 위한 새 거처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세계 각국 후원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전보다 더 많은 60여 명의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이 6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지난 15일 이번 행사를 위해 독일에서 날아온 핫무트 솔츠씨는 “시바카시는 인도의 다른 도시처럼 화려한 문화 유산이 없을뿐더러, 척박하고 삭막하기까지 합니다. 대부분이 가난하고, 부모가 돌보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어요. 폭죽 공장에서 일하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은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쉼터(이하 쉼터)를 후원했다.”

이번 자선행사는 일종의 파티로 진행된다. 와서 즐기면 된다. 물론 큰 액수를 기부해도 상관없지만 입장료 2만 원만 내면 마음껏 너그러워 안톤 솔츠 부부가 음식과 음료를 대접한다.

소식을 듣고 주위에서도 많은 힘을 보탰다. 광주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는 인도인 무굴(49)씨는 직접 카레 등 다양한 인도 음식을 만들고, 봉사동에서 요리학원을 운영중인 최미정(여·42)씨는 퓨전 음식을 준비할 예정이다. 발해 그래픽스 이선미(여·42)씨는 무료로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해줬다.

정유진씨는 “광주 사람들에게 인도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드리고 싶어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223-000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김홍빈 칸첸중가 등정 성공

순천정원박물관 성공기원... 8000m급 8개째 올라



8000m 14좌 완동에 도전 중인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49·예술스포츠 홍보이사) 대장이 20일 세계 3위 봉인 칸첸중가(8,586m) 등정에 성공했다.

“2013 한국 칸첸중가 원정대”에 따르면 김 대장은 박남수(광주시산악연맹 이사) 등반 대장과 함께 전날 오후 6시(현지시각)에 마지막 캠프인 제4캠프(7,500m)를 출발, 22시간에 걸친 약전고투 끝에 이날 오후 4시15분 정상을 밟았다.

이로써 김 대장은 히말라야 8,000m급 14좌 가운데 8개봉 등정을 이뤄냈다. 지난해 7월 K2(8611m)에 오른지 8개월 만에 8번째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원정대는 지난 달 해발 5,400m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한 후 남서벽 등반루트를 따라

세미 알파인 스타일로 등정에 나섰다. 이날 초 정상 공격을 시도했으나 제트기류 등 악천후 때문에 중단하기도 했다.

김 대장은 28세 때인 지난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매킨리 단독 등반에 나섰다. 경험 부족으로 인해 고소증세, 탈진, 피로가 겹치는 바람에 의식을 잃어 후송도중 심한 동상에 걸려 부득이 열 손가락을 잘라야 했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고 1997년 유럽 엘브루즈(5,642m)와 아프리카 킬리만자로(5,895m), 1998년 남아메리카 아콩카과(6,959m) 2007년 아시아 에베레스트(8,848m)와 호주 코지어스코(2,228m), 2009년 남극 빈슨매시프(4,897m)까지 12년에 걸쳐 세계 7개 대륙 최고봉을 올렸다.

이어 김 대장은 8000m급 14좌로 눈을 돌려 에베레스트, K2, 가셔브롬 2봉, 시샤판마, 마칼루, 다울라기리, 초오유 등 7개 봉을 등정했다.

이번 원정대는 이흥우(순천시 체육회 상

임 부회장) 단장·박상수(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명예회장) 부단장·이병철(보성 예당고 교사) 부단장, 이성원(남강산악 대표) 원정대장·김홍빈 부대장, 박남수(히말라야 무등산점 대표) 등반대장, 박현수(광주·전남 등산학교 강사)·박상훈(〃) 대인 등으로 구성됐다.

김 대장은 “불가능이란 말은 ‘가능하다’는 말이다. 항상 등반할 때마다 조금 늦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되새긴다”며 “앞으로 서투르지 않고 (완동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주내 종편 사과·‘일베’ 삭제 않으면 민·형사 고발

광주시, 법적대응 어떻게

왜곡저지 대책팀 등 구성

광주시와 5·18 관련 단체가 일부 종편과 누리꾼들의 역사 왜곡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그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5·18 폄하·왜곡 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5·18의 역사적 사실을 폄하·왜곡하는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방송한 사례를 수집해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대책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5·18 폄하·왜곡 저지 대책팀 ▲5·18 정신계승

선양팀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지정곡 추진팀 등 3개 팀으로 나누고, 각 사안별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특히 이번 대책위원회에 민변 등 법조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5·18 폄하·왜곡 저지 대책팀을 통해 5·18 개입설을 여과 없이 보도한 TV 조선과 채널 A의 방송 내용, 온라인 왜곡의 85%가량을 차단하는 것으로 파악된 인터넷 사이트 ‘일간 베스트’에 올라온 글, 일부 출판물 등의 자료를 검토해 자진 삭제나 공식 사과가 없을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주까지 5·18 폄하·왜곡 게시물의 자진 삭제를 지켜본 뒤 폄하·왜곡 행

위를 의도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누리꾼’과 이를 방치한 사이트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민사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도 5·18을 폄하·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유언비어 유포, 정보통신관련법, 방송위원회 설치법 등으로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정부부처와 포털 등에 ‘일간베스트’ 등 왜곡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현 추세상 누리꾼이 올린 특정 글을 이유로 사이트의 폐쇄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광주시의 철저한 대처가 요구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강시장 5·18 왜곡 경고 글에 네티즌 격려 쇄도

강준태 광주시장이 20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왜곡과 폄하에 대해 법적 대응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응원과 격려의 글이 쏟아지는 등 SNS상에서 뜨거운 반응이 일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와 미투데이 등 SNS를 통해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글을 올린 분은 자진 삭제를 요청합니다. 금주 말까지 삭제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내용은 이날 하루만 트위터에서 2500여 건, 미투데이에서 200여건이 넘게 리트윗됐다.

트위터들은 “속 시원하다”, “좋은 결정”, “나이스 시장님”, “시장님의 단호한 발언에 응원을 보냅니다”, “소송비용 보태겠다”는 응원과 격려의 글을 쏟아지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트위터들은 “어슬픈게 건드려서 악화만 된다. 경고가 아닌 빠른 고소로 다스려야 정신을 차린다”, “흐지부지하지 말고 제대로 처리해달라”,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이 넘기면 안 된다”, “금주까지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법적 조치를 해달라”는 등 5·18 역사 왜곡 및 폄하 행위에 대해 심하게 분노했다.

이처럼 강 시장의 발언이 트위터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와 달리 올해 유류 5·18 역사왜곡 및 폄하 행위가 일부 인터넷 사이트 및 종합편성채널에서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규직 사원모집

당사는 광주 삼성전자(주) 중, 대형 금형 수정/제작 전문 1차 협력업체로서, 2013년 물량증가 및 사세확장으로 인한 (광주 첨단2단지 내) 현지 공장 신설로 인하여, 참신하며 책임감 있으며, 근면 성실한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서	인원	자 격 요 건
금형사상 (조립/분해)	00명	- 초보 가능 / 관련 직종 경력자 우대 - 사출금형(중/대형) 유경험자 우대
CAD/CAM	00명	- 학력 : 무관
CNC M/C	0명	- 나이 : 21~45세 이하(균필 및 이에 준하는 신분) - 관련부서 자격증소지자 우대
CNC 방전	0명	- UG 프로그램 사용자 우대(CAD/CAM)
와이어커팅	0명	- 기타 해외여행에 걸려사유가 없는 분
사 출	0명	- 식당 / 청소 : 나이제한 없음
3차원 측정	0명	사내식당 유경험자
식당/청소	0명	사내청소 경험우대/초보가능

- 근무지 : 광주 첨단2단지 내
- 기간 : 총원시 까지
- 급여 : 면접후 결정
- 구비서류 : 1) 이력서 1통
2) 사진 2매
3) 주민등록등본 1통
4) 건강진단서 1통
5)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복지혜택
- 4대보험, 상여금(300%), 퇴직금, 기숙사, 근속수당, 성과제 인센티브
- 사내식당(조, 중, 석, 야식제공), 생일축하금, 명절선물, 월회식비지급
- 연/월차,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

전형방법
- 전화 후 회사방문(매주 목, 금요일 14시 정기 면접) / 구비서류 지참
- FAX 및 E-mail 접수가능(yoo03@naver.com)

(주) 신 흥 정 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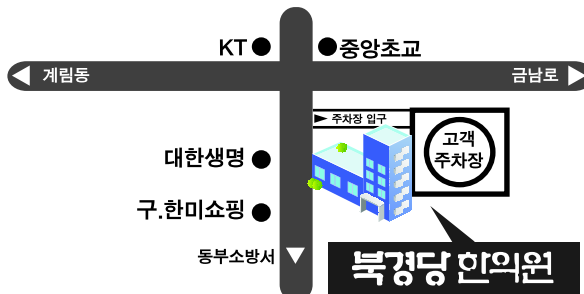
TEL. 054-473-6697 FAX. 054-473-6698 HP. 010-6309-2488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원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과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일/공휴일은 오전진료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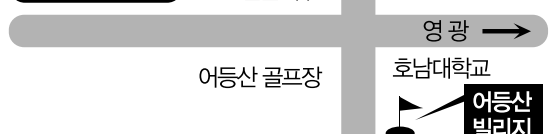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지속적인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당일대출!

- ▶ 건물/상가 추가대출
- ▶ 아파트/주택 추가대출
- ▶ 전. 답. 나대지
- ▶ 공유지분/미준공건물
- ▶ 부동산 취득자금
- ▶ 사업자금

※ 자사대출 / 자유상환 / 수수료없음 ※
최저 월1%~월3% 최고 연39%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힐 116호

062)228-0114